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

아나뵘(Anawim). 그들은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의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느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아나뵘이었다.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아나뵘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마리아는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세상 안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그 업적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였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요한 1,14)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당신을 갈망하는 이들의 염원을 이루어주심에 이렇게 찬미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굽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46-48; 51-53)

대림 시기를 시작한다.

세상에 오시어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보여주실 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가?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가? 아나뵘들이 그랬듯이... 믿는 만큼, 희망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화수를 떠 놓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비는 모습만으로 내 안에 하느님을 온전히 모실 수는 없다. 지금 길거리로 나가 이웃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에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肉化 incarnatio)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마리아가 하느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 남해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 서	로마 13,11-14ㄱ
복 음	마태 24,37-44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이 바로 종말론(eschatology)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느님께는 항상 현재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가 곧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설명을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의 예수(Historical Jesus)께서 부활하셔서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가 되심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종말은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충만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루카 17,21).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내어 주는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하느님의 사랑이 되어 갈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종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말이며 우리는 모두 구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일치하여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여전히 존재합니까?”라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인가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고통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이 같은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사랑하신다면 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 더 성장하여 하느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길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이들의 죽음이 우리 눈에는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더 큰 은총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전쟁과 재해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이며 선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왜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악인들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는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로봇이 아닙니다. 악인도 선인도 모두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8-9)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죄 많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당신 사랑 안에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자비입니다.

교구 사제총회



교구 사제총회가 11월 15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여인석 베드로 신부(교구 사목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국별로 2023년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순교자의 딸 '유섬이柳暹伊' 묘소 십자가 축복식과 감사미사



순교자의 딸 유섬이 묘소(거제면 송곡리 산방산) 십자가 축복식과 감사미사가 11월 12일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번 축복식은 이상원 베네딕토 신부(거제지구장)가 주관하여 김형렬 요셉 신부, 손권중 다니엘 신부, 교구 평협 회장, 루멘회 거제지부회장 등 신자 50여 명이 함께하였다. 그동안 유섬이 묘소가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묘소 올라가는 길이 비좁고, 경사가 심해 거제의 도움으로 진입로 개설 및 교량가설공사 등을 하여 순례객의 편익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교구 루멘회에서 묘소 진입로 입구에 5평 정도의 땅을 마련하여 전주 치명자산 유향검 가족 묘지에 있는 십자가와 똑같은 쌍둥이 십자가를 이곳 '유섬이' 묘소에 봉헌하였다.

가톨릭 농민회 추수감사미사 및 농촌 만남의 장

교구 가톨릭 농민회(담당: 강형섭 미카엘 신부)는 11월 7일 추수감사미사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함안성당에서 봉헌하였다. 미사 제대 앞에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햇살과 바람, 비를 통해 정성스럽게 마련된 각 분회의 농산물을 차려놓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신은근 신부는 “농민은 땅을 살리며 생명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으며 함께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며 격려하였다.



제31회 반석청소년축제 개최



제31회 반석청소년축제가 11월 13일 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교구 내 35개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및 관계자 500여 명(초대본당 228명, 순례본당 246명)이 참석하였다. 창원지구의 학생들이 준비한 부스를 순례본당 학생들이 체험하였다. 부스 체험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산출하여 교구 내 한울타리(그룹홈)에 참여한 순례본당이름으로 기부하였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신은근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오늘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과 준비하느라 고생한 창원지구 교리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였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코로나 시국으로 지난 몇 년간 힘들었습니다.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3년에도 주님의 이끄심과 현존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건 큰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새해에는 현실의 밝은 쪽을 더 많이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떠올리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어제든 오늘도 영원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히브 13,8).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시도한다면 도와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지난해도 우리는 몰랐지만, 그분께서는 분명 기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요한 2,1-12).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교구청 신축을 끝내고 새로운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교구장 주교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산교구라는 질그릇 안에 하느님께서 넣어주신 보화는 분명 신부님들과 교우님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의 신앙 활동으로 서서히 돌아가야겠습니다. 미사참여와 기도생활 그리고 복음화에 헌신했던 행동들을 점진하며 실천에 옮겨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이 감사와 기쁨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예전의 다양한 교육들을 새롭게 동원해 이러한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신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도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겸허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쇄신이 함께해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내적쇄신이 나무라면 기도생활은 뿌리입니다. 묵은 것을 뛰어넘고 새롭게 나아가려면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생활에서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본당 활동에서도 아무 계산 없이 주님께 시간과 열정을 바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뿌리를 강하게 하는 믿음의 길이며 행동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2023년에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되면 삶은 그만큼 달라집니다. 매일의 기도와 본당 공동체 기도에 충실하다 보면 이러한 체험들이 조금씩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를 매일 바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주일미사 참여 빠지지 않을 것도 결심해 봅시다.

교우 여러분,

새해는 주님축복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몇몇 습관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삶을 어렵게 하는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시도를 결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청하는 기도를 정월 첫날부터 바칩시다. 그리고 한 해 내내 그러한 기도를 바칠 것을 결심합시다. 기도는 힘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대세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려면 은총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기도와 성사생활 참여는 은총을 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매일의 기도에 충실하고 가끔은 성경을 접하며 주님 목소리를 들으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1요한 4,16).

실천 사항

1. 주일미사 참여, 빠지지 맙시다.
2. 평일미사에 자주 참례하며 영성체합시다.
3. 아침,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매일 바칩시다.
4. 공소와 성지를 순례하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합시다.
5.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합시다.
6. 개인별로 혹은 단체로 매주 한 번씩 성경공부를 합시다.

2023년을 준비하는 대림 첫 주일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교구장 서리 동정

신앙대학 졸업미사

일시: 12월 4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교구성경봉사자 종강미사 및 모임

일시: 11월 29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12월 3일(토)~4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졸업미사

일시: 12월 4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12월 4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5일(월) 14:00~14:30-성체조배
14:40~15:10-미사(주례: 정운호 신부)
15:20-회의/ 장소: 호계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기타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3년 1월 6일(금)~8일(주일)
장소: 살레시오회관구관(서울)/ 참가비: 3만 원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남성
문의: 010·2042·8353(심재현 신부)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일정: 매일 1회
장소: 도쿄,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지도: 송진욱 신부/ 비용: 99만 원부터
문의: 010·3645·902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토) 16:00~23년 1월 1일(주일)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이청준 신부),
송년파티,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 010·7542·9631

영화 <탄생> 11월 30일 개봉

새로운 세상을 꿈꾼 청년 김대건의 위대한 모험
호기심 많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청년 김대건.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라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학생 동기 최양업, 최병제와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나선다.



▶ CGV 직영점 본당별 대관 가능-매주 주말 토, 주일 각 1회차 희망 상영시간으로 1인 8천 원으로 진행 (100석 기준 80만 원-거제, 김해, 마산, 창원, 창원 더시티, 창원왕남 등 선택 가능)
·문의: CGV 경남 055·911·1482~3
▶ 메가박스 마산지점·창원지점·창원 내서지점 본당별 대관 가능(100석 기준 70만 원)
·단체 관람 할인: 가격-1인 1만 원(20명 이상 단체 할인 가능, 카라멜 팝콘(R) 1인당 1개 증정)
·문의: 메가박스 마산 02·3147·3714/ 창원 02·3147·3772/ 창원 내서 02·3017·3678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1월 28일(월) 19:00	중앙동성당	인간관계의 상처치유	김명희 도미니카(서울대교구 성령봉사회)	이영민 베드로 신부	010·5072·5612
진주지구	11월 28일(월) 19:30	신안동성당	성령 하느님	백남국 요한 신부		010·3846·1980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월 4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p>신타이코 순례 (지진기/도보) 상봉 기념 상지순례 전문 여행사 인젤투어</p> <p>12월 12일 ~ 16일 베트남 성모발현지 (다낭) 3박 5일 125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매출 모금 및 신심대제행 단역행사</p> <p>대표 운영인 마티아 010-4999-3797 직접 인니*기도*교육*수배 합니다.</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p> <p>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3박 5일-11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p> <p>마르크 투어 010-4239-1929</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p> <p>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룹레슨 운영 상남동 소재</p> <p>김민형 요셉 010-5110-3039</p>	<p>가톨릭 우리농 직매장</p> <p>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층</p> <p>055·266·7010</p>	<p>■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2023년 1월 이스라엘 9일 성지순례</p> <p>■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p> <p>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따뜻한 우산

김연희 크리스티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가슴을 태우던 몇 개의 태풍이 지나갔다. 대기를 가득 채운 열기를 밀어내기 위함인가 가을은 그렇게 태풍 보낸 높고 빈 하늘로부터 시작된다. 이 계절엔 갈 곳과 볼 것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처럼 지나간 여름은 언제나 위대하다. 그러나 갈수록 기온은 높고 길어 상대적으로 짧은 가을은 아쉽다. 때로는 가슴 시리고 베일 것 같은 서늘한 공허함이 나이 들에 외로움을 보탠다.

성천상을 받은 '길 위의 천사' 신문 기사를 읽었다. 성천상은 창업자인 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십 년 전에 제정됨을 알게 되었다. 최영아(52세) 씨는 의예과 학생 때 비 오는 날 선배들을 따라 행려병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밥 봉사를 하러 갔을 때 길바닥에 주저앉아 빗물과 흙탕물이 섞인 밥을 퍼먹는 모습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십 년이 지난 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심중에 담아두었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낮은 곳 노숙인에게 서슴없이 다가갔다. 청량리 천사병원에서 유일하게 상주 의사로 밤낮없이 노숙자, 장애인, 알콜중독자, 외국인 근로자 등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필요한 곳 요셉의원, 다가서기의원진료소, 도티기념병원 등을 찾아가 치료와 간호로 정성을 바쳤다. 물론 모교 교수직 제안도 거절하고 그들의 따뜻한 우산이 되어 한결같은 반평생을 보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환자 수가 하루 백 명을 넘는 날도 있었다니 그 의사의 수고에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녀에게 유일한 인생 멘토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인 쪽방촌 슈바이처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자처럼 헌신하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한다.

내가 시골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시절에 영등포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님을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선한 눈빛에서 주님의 진정한 일꾼임을 알았기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며 마지막 날까지 존경심을 보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노숙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걸고 실천하면서 자신은 이 선택된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사랑받고 있다고 하셨다. 겸손함에 가슴은 더 아려오고 찢릿하다. 놀라운 것은 어느 환자의 손 폰엔 달랑 의사의 번호 하나만 남겨있었다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로지 노숙자에게 쏟은 보살핌이 어떠한지 짐작이 간다. 가난한 이들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지지하고 지켜주는 성심이야말로 주님의 사랑 실천이 아니겠는가? 내 주위에도 일상에서 봉사 정신을 놓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이가 많이 있다. 반면에 그저 비싼 의식주에 명품 가방, 액세서리 등을 추구하는 모습과 오직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살아가는 듯 우아한 겉멋만 지향하는 태도를 보면 종종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나 역시 한통속이다. 티끌만 한 봉사를 하고는 은근히 자랑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실천이라는 최소한의 비를 막아주는 따뜻한 우산을 들고 온정의 친구가 되어 더욱 나눔의 정성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2 겨울 단기모금

산타가 되어요

유난히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올해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외로운 이웃에게 가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12월 25일을 의미 있게 2,500원을 계좌로 보내주세요.

단기모금기간 : 12월 11일(주일)까지

후원계좌 :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이체 후 복지관으로 연락바랍니다.(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마산장애인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행사

동네에서, 우리 만날까요?

일시 : 12월 10일(토) 13:00~17:00

장소 : 쏘카페 (의창구 평산로185번길 48 2층)

대상 : 마산장애인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복지관과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기다림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살아가는 준비와 창조의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대림待臨은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이고, 영어로 대림절을 뜻하는 Advent는 ‘오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Adventus’에서 기원을 둔다. 대림은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신 분이 나타나시기를, 도착하시기를 기다린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기간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느님의 법칙이기도 하다. 신앙의 근본은 기다림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그리스도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주시기 위해 오심을 묵상하며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진한 보라색 초에서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는 첫 촛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는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결단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이 기다림의 시기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증거하며 기다림과 파스카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빛을 가둬두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빛으로 초대하고 이끄신다. 아시아의 그리스도의 성혈흡수자들은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지구에서 1977년 마산교구로 진출한 한국 성혈흡수자들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이라는 정신으로 살고자 한다. 한국 성혈흡수자들은 2007년부터 베트남 지원자들을 받아 양성했고 2019년, 한국에서 양성 받은 6명의 베트남 수녀들을 베트남 호치민으로 파견했다. 기다림 속에서 결실을 맺고, 베트남 교회에 기쁜 소식을 전달한 복된 결과이기도 하다.

미래를 진정성 있게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가 가지는 의미를 과거로부터 견지하며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해내는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모든 성혈흡수회원들이 ‘예수님과 이웃사랑’ 안에 성장하고 투신하고 그 안에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 베트남 사이공교구와 타이빈교구에서 베트남 성혈흡수자들이 구원의 빛을 알아채고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살아가길 바라며 기도한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역동적인 기다림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 매 순간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복된 기다림을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께 청하며 기도한다.